

프랑스 : 분야별 노동 인력 불균형과 자구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사회를 들끓었던 연금 개혁안을 2023년 4월 14일 공식 공포했다. 이어 관보에 연금 개혁안이 게재되면서 이를 둘러싼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¹⁾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프랑스노동총연맹(CGT)” 등 프랑스 노조들은 여전히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동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이슈의 중심이었던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절차상 요건이 마무리되면서 정부 등 정치권 주도로 새로운 안건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안건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일손 부족 문제는 현재 프랑스 사회가 대처해야 할 주요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한 경제포럼에서 프랑스 재정경제부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은 현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구매력(pouvoir d'achat) 약화”를 꼽았다.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안건으로 “인력난(pénuries de main-d'œuvre)”을 언급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²⁾

1) France Bleu, “Réforme des retraites : la loi officiellement promulguée par Emmanuel Macron”, 2023.4.15.

2) Les Echos, “Les pénuries de main-d'œuvre, nouvelle «urgence» de Bruno Le Maire”, 2022.7.13.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2023년에도 중요한 노동 안건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난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개되는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

현재 프랑스에서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만연하다.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드(Indeed) 프랑스가 2023년 1월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경영진 중 63%가 인력 부족에 따른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 근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자 중 35%는 실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사회에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를 꼽는다. 인디드가 구인구직 및 직장 평가 사이트인 글래스도어(Glassdoor)와 함께 작성한 “Hiring and Workplace Trends Report 2023”에 따르면 프랑스 내 적극적 구직 활동 인구인 25~54세 사이 인구 비중은 30% 초중반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낮은 비율은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참고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해당 인구 비중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 프랑스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항상 하위권에 위치한다. 2026년 프랑스의 20~54세 인구층은 36%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았다. 2050년에는 이 수치가 34.3%로 낮아져, 독일의 33.7%보다 근소하게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은 같은 기간 약 37%로 프랑스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했다가 2030년 후반부터 최하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2026년 약 42%에서 2050년 34.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³⁾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극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적극적 구직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보다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시설 청소부와 교사, 운전기사 등 특정 분야에서 많은 수의 은퇴자가 있을 것

3) Indeed, “Indeed & Glassdoor’s Hiring and Workplace Trends Report 2023”, 2022.11.18.

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총리 산하 국가전략 자문기구 프랑스 전략(France Stratégie)과 프랑스 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지원국(DARES)이 지난 2022년 3월 10일 공개한 “Les métiers en 2030”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프랑스 노동시장의 전반적 변화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시설 청소부의 경우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48만 8,000개의 일자리 공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종사자 은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약 46만 2,000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교사직에서는 같은 기간 32만 9,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약 1,000개의 일자리만 새롭게 창출되고 그 외는 종사자 은퇴에 따른 일자리 공급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기사 직종에서도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약 30만 1,000개의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신규 일자리 수는 1만 8,000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규모 은퇴로 일자리 수요는 발생하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시설 청소부 직종에서는 16만 명 정도의 인력만이 새로 총원되면서 대략 32만 8,000건의 인력 부족이 전망된다. 교사 직종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긍정적이며 26만 1,000명의 신규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6만 8,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운전기사 직종 역시 새로 진입하는 인력이 1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20만 1,000건에 달하는 불균형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가사 도우미와 제품 운반 숙련 노동자, 행정 및 회계, 재무 관리직 등과 같은 직종에서도 상당한 인력난이 전망된다.⁴⁾

물론 모든 업종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고 떠오르면서 업종별 인력 공급에 차이가 발생한다. 각 분야별로 노동시장 규모, 요구되는 학위 및 숙련 노동 정도에 따른 진입장벽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을 정량화해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인력이 해당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신규 인력 총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흐름을 일부 감지할 수 있다.

“Les métiers en 2030” 보고서를 보면 문화 및 체육 활동, 교육감독 직종(professionnels

4) France Stratégie(2022), “Les métiers en 2030”, <https://www.strategie.gouv.fr/> (2023.4.19).

de l'action culturelle, sportive et surveillants)에서는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신규 인원이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산업기술 관리직 및 엔지니어 (ingénieurs et cadres de l'industrie)에서는 45%로 추산된다. 농업 관리직 및 기술자, 의료 보조 직종 등에서는 이 수치가 44%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인력 비중을 보였다. 시설 청소업에서는 13%, 운전기사업은 12%로 나타났다. 또 가사 도우미 직종은 8%, 육아 도우미는 10%, 숙련된 건축 기술자는 13% 등으로 추산됐다.

경제와 사회구조 변화에도 하향 업종과 상향 업종은 항상 존재했다.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도 늘 발생한다. 문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인력난은 당장의 해결책이 강구된다는 점이다.

■ 인력난에 대처하는 자구책

인력 부족 문제,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장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오늘 날에도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름 바캉스 시기를 앞두고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숙박업과 요식업 등에서 겪는 인력 총원 어려움은 연례 행사처럼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호텔업연합회(UMIH)에 따르면 2023년 여름 20만 개에 달하는 계절노동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⁵⁾

반면 필요한 인원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중해에 접하며 니스와 칸, 생트로페 등 프랑스 주요 휴양지가 밀집한 코트 다쥐르 지역에서만 2022년 여름 기간 동안 1만 명에 달하는 계절노동자 부족을 겪었다.⁶⁾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프랑스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숙박 및 요식업에서 36만 610개의 일자리 수요가 있었고 그중 63.2%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인

5) France Stratégie(2022), "Les métiers en 2030", <https://www.strategie.gouv.fr/> (2023.4.19).

6) Franceinfo, "«Un recrutement à l'anglo-saxonne» : face à la pénurie de saisonniers, l'hôtellerie-restauration embauche sans CV", 2023.4.11.

력 충원이 쉽지 않은 일자리에서 계절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달했다.⁷⁾

노동력 확보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스스로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채용 과정의 단순화가 눈에 띈다. 채용할 때 제출하는 이력서나 관련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노보텔과 이비스, 머큐어 등을 거느린 프랑스 대형 호텔 체인 아코르는 지난 2022년 노동력 부족 현상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파리와 보르도, 리옹에서 업종 관련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이때 지원자는 이력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다. 다만 호텔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실무능력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실제 약 500명의 지원자 중 350명에게 아코르 계열 숙박 체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⁸⁾

그 외에도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UMIH는 튀니지 고용 및 독립노동청(Aneti)과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프랑스 숙박업 또는 요식업, 관광업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튀니지인들이 최대 5개월 간의 단기계약으로 프랑스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협약은 2023년부터 시행되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에 들어오는 튀니지인은 약 4,0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⁹⁾ 해당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정 정도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 및 요식업계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절노동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 관련 문제보다 어떤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7) Actu, “Pénurie de main-d’œuvre pour l’été : pourquoi les employeurs peinent à recruter des saisonniers”, 2022.5.25.

8) Le Figaro, “Accor inaugure le recrutement sans CV”, 2022.9.7.

9) Ouest France, “Pénurie de saisonniers en France : la main-d’œuvre tunisienne bientôt à la rescousse”, 2022.8.3.

■ 프랑스 정부의 대책 마련 움직임

DARES가 2023년 1월 2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해외 레지온 마요트를 제외한 프랑스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A 등급(catégorie A)에 약 305만 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일자리가 없음에도 노동시장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데 난항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가 취한 정책도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실업보험 시스템에도 반영됐다. 해당 실업보험 체계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현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조정된다는 점이다. 53세 미만인 실업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53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6개월까지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9%보다 낮고 한 분기 사이에 실업률이 0.8%p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25% 줄어든다. 즉 실업률이 9% 안에 머물고 한 분기 사이에 0.8%p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53세 미만 실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 기간이 최대 18개월이 된다. 최소 수령기간 6개월은 보장된다. 반면 실업률이 9%보다 높고 한 분기 사이에 실업률이 0.8%p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의 25%에 해당하는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53세 미만 실업자의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실업보험금 최대 수령 기간은 24개월이다.¹¹⁾

프랑스 정부는 사실상 수령 기간의 감소로 인해 실업자가 보다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 노동부 올리비에 뒤솅트 장관은 새로운 실업연금 시스템으로 2023년 10만~15만 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¹²⁾ 일자리로 빨리 돌아가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 DARES, “Demandeurs d’emploi inscrits à pôle emploi au ‘e trimestre 2022”, 2023.1.25.

11) Vie Publique, “Sept questions sur la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2023.3.14.

12) Franceinfo, “Réforme de l’assurance-chômage : on vous explique les nouvelles règles d’indemnisation des demandeurs d’emploi”, 2022.11.21.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 있다. 앞서 프랑스 숙박 및 요식 업계 사례에서 봤듯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단기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 건수의 변화에서 이 같은 흐름이 잘 드러난다. 프랑스 내무부 산하 프랑스 외국인 종합 관리청(Direction générale des étrangers en France)에 따르면 2022년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계절노동 허가건수는 약 2만 2천 건에 달했다. 또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소(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는 이 중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이미 프랑스에 들어왔고,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계절노동 허가건수만 두고 보면 2012년 약 1,000여 건에 그쳤지만 약 10년 사이에 스무 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약 5,600건과 비교해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중 약 75%는 모로코 출신이며 대다수가 남성으로 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³⁾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이는 “이민법(loi immigration)” 개정안에서 잘 나타난다. 이민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이른바 불법 거주 노동자(travailleurs sans-papiers)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métiers en tension)에서 최소 3년간 근무하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된 경우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인력 부족 직종에 한하여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2023년 2월 1일 발의했다.¹⁴⁾ 다만 은퇴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격화되면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는 진척이 없었다.

2023년 3월 말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안을 보다 세분화하고 간략하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18일 프랑스 내무부 제랄드 다르마넵 장관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민법 개정안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준비될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범죄

13) Le Monde, “Emploi : le recours aux saisonniers étrangers en forte hausse”, 2022.8.3.

14) Le Point, “Que contient le projet de loi immigration?”, 2023.2.1.

(délinquance étrangère)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프랑스 법 체계를 존중할 경우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¹⁵⁾ 이에 따라 향후 이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맺음말

노동력 부족과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른 인력 충원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프랑스 내 움직임은 한국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한국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곧 직면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에서 마련되는 대처 방안을 한국에 직접 도입하기에는 문화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움직임은 예견된 문제들을 보다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KLI**

15) TF1, “Loi immigration : que veut faire Emmanuel Macron?”, 2023.4.18.